# 남도소리·춤의 산실 '나주 신청' 복원

조선후기 전라도 명인・명창 배출한 예능 교육・전수 공간 남도소리 홍보하고 향유…남도문예 르네상스 거점 기대

남도예술의 산실 나주 '신청(神聽)'이 복원됐

나주시는 전라도 전통예술의 산실이자 예인(藝 人)들의 구심점이 됐던 '나주신청'이 지역 전통문 화 계승과 창조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 다고 27일 밝혔다.

신청(神聽)은조선 후기 무가(巫歌)의 남자들이 친목으로 상부상조하며 후학을 교육하기 위해 조 직한 단체로 예능을 연마하고 전수하는 공간으로

나주를 중심으로 화순, 장흥, 해남, 진도, 여수 등 전라도 군•현단위 큰 고을에 존재했으며 오늘날 까지 이어지는 삼현육각, 판소리, 산조 등 남도 전 통예술은 대부분 신청 사람들에 의해 개발되고 전

나주신청 조직 시기는 1800년(정조 24년)에 만 들어진 나주신청의 문서로 미뤄 19세기 이전으로 짐작되며, 일제강점기에 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나주신청은 조선 후기 8명창인 정창업을 비롯해

어전광대 정재근, 근대 5명창인 김창환 등 판소리 융성 시대 주역들을 배출하며 서편제 판소리의 꽃

나주 예인의 역사는 근대 이후까지 이어져 한국 최초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정광수, 가야금산조 의 안기옥·정남희, 소고춤의 안채봉, 교방굿거리춤 의 김계화 등 수많은 명인·명창을 배출했다.

나주신청문화관 건립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 념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라도 천년 정원 조 성사업의 하나로 시행됐다.

나주시는 남도 예술을 꽃피웠던 신청 예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자 문화관을 원도심 소재 전통 고택을 옮겨 짓는 형태로 재복원했다. 부지 452㎡ 에 전체 면적 82㎡, 한옥 2동(전시·공연장 1동, 정 자 1동)이 들어섰다.

나주시는 문화관을 판소리·창극·산조 등 전라도 소리 문화 전승과 다양한 공연예술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문학콘서트 나주소리 판, 전통 음악 전공자 교육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판소리 애



남도예술의 산실이자 전라도 소리 중흥을 이끈 '나주 신청'이 지난 25일 복원, 개관했다.

호가들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열린 개관식에는 나주신청의 역사와 가치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과 지신밟기, 축하 공 연,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신청은 남도 예술의 산

실로서 조선후기 명인·명창을 대거 배출하고 판소 리 융성 시대를 주도했던 곳"이라며 "나주신청의 맥을 잇는 나주신청문화관은 전라도 소리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향유하는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거 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강진 다산연수원·청소년수련관 개관

149억 들여 동성리에…공직자 청렴교육·청소년 문화공간 활용

강진군은 지난 25일 다산청렴연수원과 청소년수 련관의 문을 열었다.

강진군은 연수원과 수련관 건립에 149억원을 투

다산청렴연수원은 전국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의 대표 교육과정인 다산청렴교육을 하는 교육시설이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연면적 2206㎡에 3층 41 실 규모의 생활관과 200여명이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연면적 822㎡ 규모의 다산교육관으로 구성됐

같은 부지에 조성된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 2078㎡ 지상 3층 규모로 지역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 창작·예체능 활동의 중요 무대로 활용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국 공직자들의 청렴 교 육과 강진 청소년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이 마련됐 다"며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한편 강진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은 지난 25일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서 다산청렴연수원과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했다.

#### 장성군·육군 상무대, 28~29일 먹거리장터 운영

'팜밀리 마켓' 매달 마지막 주 목·금 개최

장성군은 육군 상무대와 함께 지역 먹거리장터 인 '팜밀리 마켓'을 매달 마지막 주 목·금요일 정기 적으로 연다고 27일 밝혔다.

'팜밀리 마켓'은 농가(farm)와 군대(military) 켓'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것이다.

이달에는 28~29일 이틀간 상무대 군인 가족이 거주하는 삼계면 상무아파트에서 개최한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과 '아나바다' 장터, 어 린이 체험 행사, 일자리 상담, 문화 행사 등이 준비

됐다. 이 곳에서는 지역 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 한 정례 직거래장터 공모 사업에서 확보한 예산으 로 11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목・금요일 '팜밀리 마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 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구매할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28~29일 삼계면 상무아파트에서 '팜밀리 마켓'을 연다. 지난해 열린 팜밀리 마켓 현장.

## 함평 자연생태과학관 12억 들여 나비·곤충 전시콘텐츠 확대



함평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지역과 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함평자연생태과학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함평자연생태과학관은 지역 명소인 자연생태공 원 내 위치한 나비영상관으로 300여 점의 나비·곤 충 표본과 관련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함평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학관 내 전시 시설과 각 종 콘텐츠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단순 전시 체험에서 나비·곤충 콘텐츠를 활용한 3D 액자스크 린, 360도 입체영상, AR 곤충체험, VR 나비체험, 나비미끄럼틀 등으로 대폭 탈바꿈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 족했던 영상 체험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면 관람 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자연생태공원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연 생태공원을 비롯한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내 시설 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장흥군, 정남진물축제 취소 가닥 여론조사 통해 개최 여부 최종 결정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 우수축제인 장흥 '정남진 물축제'의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9일 까지 개최 예정이던 '제13회 정남진물축제'를 취 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쌓은 '맑은물 푸른숲'의 청정장흥 이미지 가 물축제로 인해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또 행사 준비 기간이 60~70일가량 소요되는 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행사 준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축제 개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장흥군은 빠른시일 내에 지역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최 여부를 최종 결 정하기로 했다.

정남진물축제는 타 지역 물축제와 차별화해 '장 흥-물축제'라는 신선함과 장흥만의 장소성을 가미 한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한 축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